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129

노인학대!

바
로
알
기



실버스마일 홍보대사 최재원·한성주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알고 계신가요?

노 인 학 대

며느리가 밥을 주지 않아 창문너머로 주민들이 주는 음식으로 연명하는 할머니,
며느리가 알면 그나마 받은 음식조차 빼앗기고 방에 갇힌 채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연명

- SBS '긴급출동 SOS 24' 밥 굶는 고령의 할머니를 도와달라!

- "돈 안준다" 노모 폭행한 아들 징역 3년 - 매일경제
- '老-老학대'로 명드는 고령화 사회 - 동아일보
- 학대로 피명 든 노인들 "그래도 내 자식인데..." - 연합뉴스

노인학대의 대부분은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노인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시작되고,
무관심 속에서 지속되는 것을 아십니까?

노인학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우리의 관심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 저소득의 장남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할아버지는 장남내외가 일을 나가는 낮에는 주로 실직한 손자와 함께 있었다. 알콜 중독인 손자는 수시로 할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심부름을 시켰고, 할아버지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목을 조르고 팔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 ❧ 치매초기 증상으로 의치증이 있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폭력을 행사하고 밖에서 방문을 잠가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 척추질환으로 실직하면서 아내와 이혼하게 된 아들은 술을 마시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노모에게 “나가서 죽어 버려라”는 등의 폭언과 물건을 던지고 부수는 행위를 십 수 년 동안 지속해왔다.
- ❧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는 큰아들부부와 함께 생활하였다. 며느리는 할머니 면전에서 “노인네 돈은 안벌면서 밥은 얼마나 많이 먹는지”, “병원비며 약값이며 감당이 안된다”며 수시로 눈치를 주었다.





- 할머니는 독거노인으로 부양할 사람이 없어 홀로 살고 있다.
이웃에 사는 A는 할머니를 도와준다고 하며 할머니 집에 자주 출입하였으며,
밤늦은 시간에도 갑자기 집으로 들어와 할머니의 몸을 더듬고 성추행을 하였다.
- 요양보호사 A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요양시설의 거실에서
할아버지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할아버지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 외지에서 사업을 하다 빚을 지고 고향으로 내려와
노모와 살게된 아들은 수시로 노모에게 돈을 요구하고,
노모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등을 마음대로 유용하였다.
- ❖ 노부부는 아파트 구입 자금을 보태주면 평생 모시고 살겠다는
아들의 약속을 믿고 거주하던 집과 재산을 처분하였다.
그러나 함께 산지 얼마되지 않아 아들은 태도를 바꿔
단칸방을 구해 줄테니 따로 나가서 살라고 강요하였다.

-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빈번한 가정폭력으로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은 모두 집을 떠나고 막내아들만이 남아 함께 생활해왔다.
그러나 중풍에 걸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등 혼자 거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나, 막내아들은 인과응보라며 의식주 제공을 비롯한 부양을 거부하였다.
- 사업실패 후 남편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떠나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된 며느리는 갑작스러운 생활고와 부양부담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모에게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 또한 방도 청소해주지 않아 음식물이 몇 달째 썩고 있는 등 비위생적인 거주환경을 방치하였다.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 노모와 함께 생활하던 아들은 형편이 어려워지자 치매에 걸린 노모를 여름 휴가지에 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길을 헤매던 노모는 경찰의 도움으로 집을 찾을 수 있었지만 아들은 노모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며 모시기를 거부하였다.
- ❖ 장남과 차남은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모 부양을 서로 미루며 서로의 집 앞에 모셔다 놓는 상황을 반복하였다. 추운 겨울날 집 밖에서 떨고 있는 노모를 이웃이 발견, 경찰에 신고하였다.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진행과정】



● **신고** | 1577-1389 또는 129로 전화(24시간 상담)



● **사례접수** | 학대의심사례, 일반사례 등으로 구분

● **현장조사** | 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 **사례판정** | 응급, 비응급, 잠재, 일반사례 판정

● **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및 지역사회자원연결



● **평가 및 종결**



● **사후관리**



* 노인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학대 예방·보호 및 노인권익향상을 위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전문서비스 제공 등 각 지역별로 노인학대 사례를 관리하고 있으며, 나아가 노인학대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연계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129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

- 1__지역 내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계신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습니다.
- 2__노인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으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 3__어떠한 이유로든 노인을 학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 4__노인학대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5__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의 노인을 존중합니다.
- 6__노인부양에 대해 가족원이 역할분담을 하고,
각종 사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며 노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합니다.
- 7__정기적으로 노인의 안부를 파악하고, 긍정적으로 대화하도록 합니다.



Silver Smile이란?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탄생한 Silver Smile 브랜드는,
노인학대 없는 밝고 건강한 노인의 모습을 형상화 하고 있다.
나도 언젠가 노인이 된다는 진리를 바탕으로 노인이 웃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의지를 담고 있다.

노인학대 신고 전국어디서나 **1577-1389**(24시간 상담), 국번없이 **129**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발행일 | 2010년 9월 발행인 | 김진영 발행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권농동 126-2 삼성빌딩 3, 4층

전화 | 02)3667-1389 팩스 | 02)2634-5023 홈페이지 | www.ncinboho.or.kr 편집디자인 | nina's eye 인쇄 | 서울문화인쇄(주)

